"펭귄이 녹아요"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광장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얼음조각 퍼포먼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얼음 펭귄 조각품과 자신의 손바닥을 찍어 만든 부채를 들고 웃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련 인터뷰 20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창립 60주년 맞은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9명서 219명으로

치열한 수임 경쟁…법무법인·합동변호사 급증

당직 변호사제 운영 등 법률서비스 활동 활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중돈)가 오는 28일 창립 60돌을 맞는다. 광주·전남지역 '법조 3륜(輪)'의 한 축으로 '이순'(耳順)의 나이를 맞은 셈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해방 이후인 1948년 7월 '변호사법'이 공포되면서 광주 6명·목포 2명·순천 1명 등 총 9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돼 첫걸음을 시작했다.

초대 회장에는 광주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중이던 김재천 변호사가 선출됐다. 당시 광주에는 김재천 변호사 이외에 김창돈·신순언·여철현·이규정·오필선 변호사가 있었으며, 목포 김형호·김종규, 순천 김용무 변호사가 전부였다.

한국 전쟁과 4·19, 유신, 5·18 등 숱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해 온 변호사회는 이후 35년 뒤인 1983년에 이르러 회원 수가 47명으로 늘었고, 이어 10년 뒤인 1992년에 등록 회원 수 102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사법고시 합격생이 매년 1천명으로 급증하면서 10년 만에 등록 회원 수가 두배로 급증, 현재 등록 회원은 219명으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는 최근 치열한 수임경쟁에 돌입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부 변호사들이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5인 이상 변호사를 거느린 법무법인만 10곳, 2인 이상이 활동중인 합동법률사무소도 26곳으로, 3년 사이 각각 2배로 늘었다.

양적인 팽창만큼이나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3년 당직변호사 제도 운영을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시민인권 상도 제정했다.

또 2000년 이후부터 ▲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인터넷 무료법률 상담지원 변호사단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노인법률 지원변호사단 운영 등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광주지방변호사의 60년 역사를 담은 광변 60년사 간행을 준비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

광주기독병원, 순천·강진 의료원 동참

보건의료산업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벌이는 23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기독병원과 순천·강진의료원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나머지 대형병원들은 노조 간부들만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3일 하루동안 산별교섭 진행을 압박하는 경고성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전본부는 이에 앞서 22일 오후 7시께 광주기독병원과 강진의료원에서 노조원 500명이 참석하는 파업전야제를 가졌다.

전 조합원이 하루 파업에 돌입하는 광주기독병원과 순천·강진의료원 외에도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보훈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대한적십자 혈액원 등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천·강진의료원은 하루 총파업을 넘어 전면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금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herts.com은 HERTZ 상표 침해"

광주지법 美회사 승소 판결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유승관)는 22일 미국 허츠시스템(Hertz System Inc)이 박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 'herts.com'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허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1년 5월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에 등록한 'herts.com'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허츠의 상표 'HERTZ'와 외관 및 발음이 유사하다"며 "특히 박씨가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개설한 사이트 역시 형식적으로만 개설됐을 뿐 오랜 기간 방치된 점을 감안할 때 허츠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음' 로그인 오류 개인정보 대거 유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가 로그인 오류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거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50여분 동안 다음 한메일에 접속할 경우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 계정의 이메일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계속됐다.

로그아웃한 뒤 재접속을 하거나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도 무작위로 다른 회원의 이메일함이 노출되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용자가 이들 메일을 클릭할 경우 내용이 열리지는 않았으나 '골라보기' 기능을 통해 첨부파일함만 선택할 경우 첨부파일까지 내려받을 수 있었다. /연합뉴스

다시 온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며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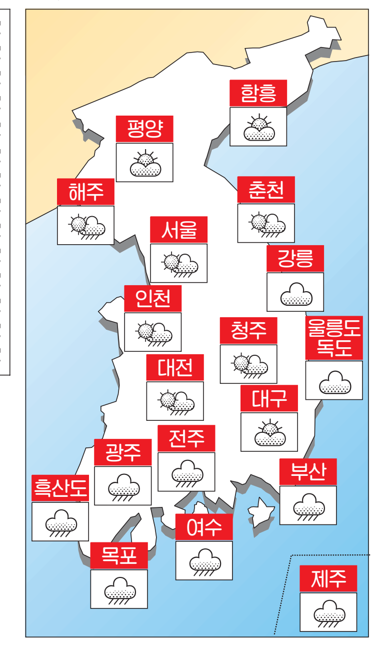
7월 23일 (음 6월 21일) 날씨

광 주	한 두차례 비	25~30℃
목 포	한 두차례 비	24~28℃
여 수	한 두차례 비	24~29℃
완 도	한 두차례 비	24~29℃
구 례	한 두차례 비	24~30℃
해 남	한 두차례 비	24~29℃
장 흥	한 두차례 비	24~29℃
고 흥	한 두차례 비	23~31℃
순 천	한 두차례 비	23~30℃
영 광	한 두차례 비	24~29℃
진 도	한 두차례 비	25~31℃
전 주	한 두차례 비	24~30℃
남 원	한 두차례 비	23~30℃
흑산도	한 두차례 비	21~26℃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05:16 17:36 썰물 10:31 22:42
여수 밀물 12:08 --:-- 썰물 05:57 17:59

◇전국날씨



▲해뜸 05:35 ▲해짐 19:43 ▲달뜸 22:18 ▲달짐 10: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 씨						
최저/최고	25/31	25/31	26/31	25/32	25/32	26/32

금요일까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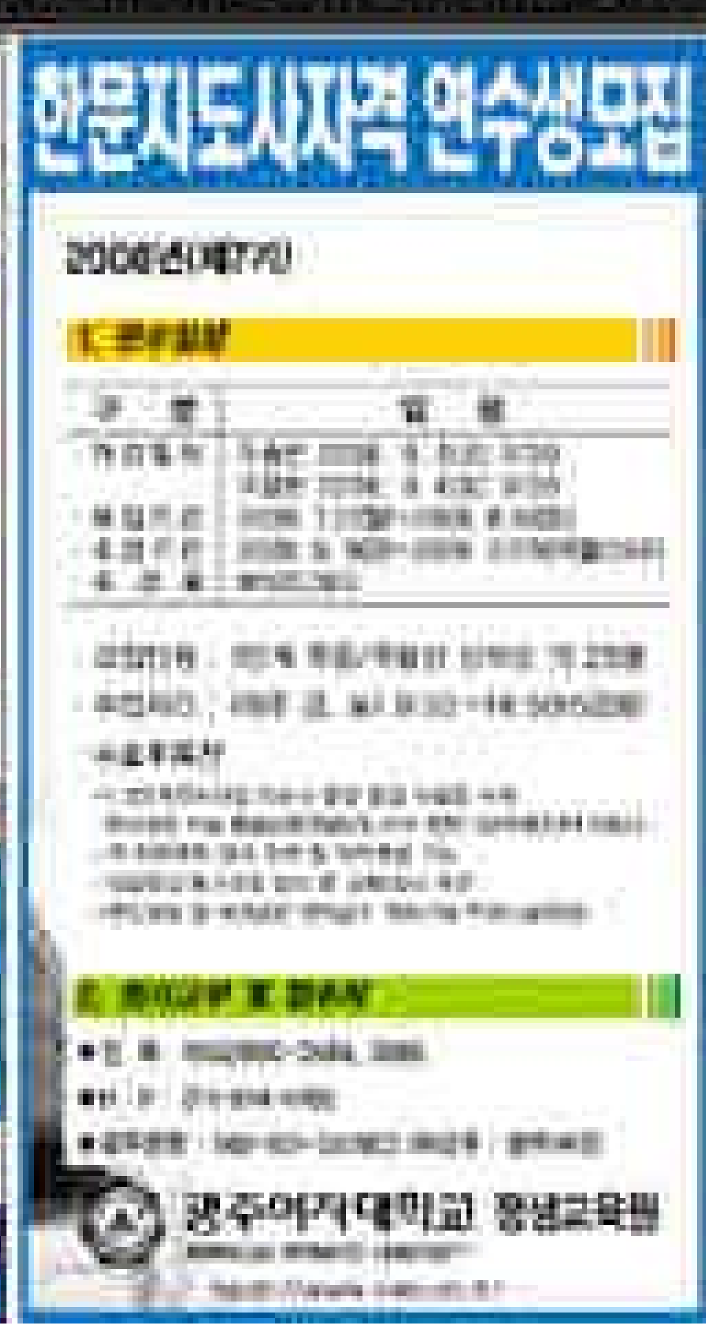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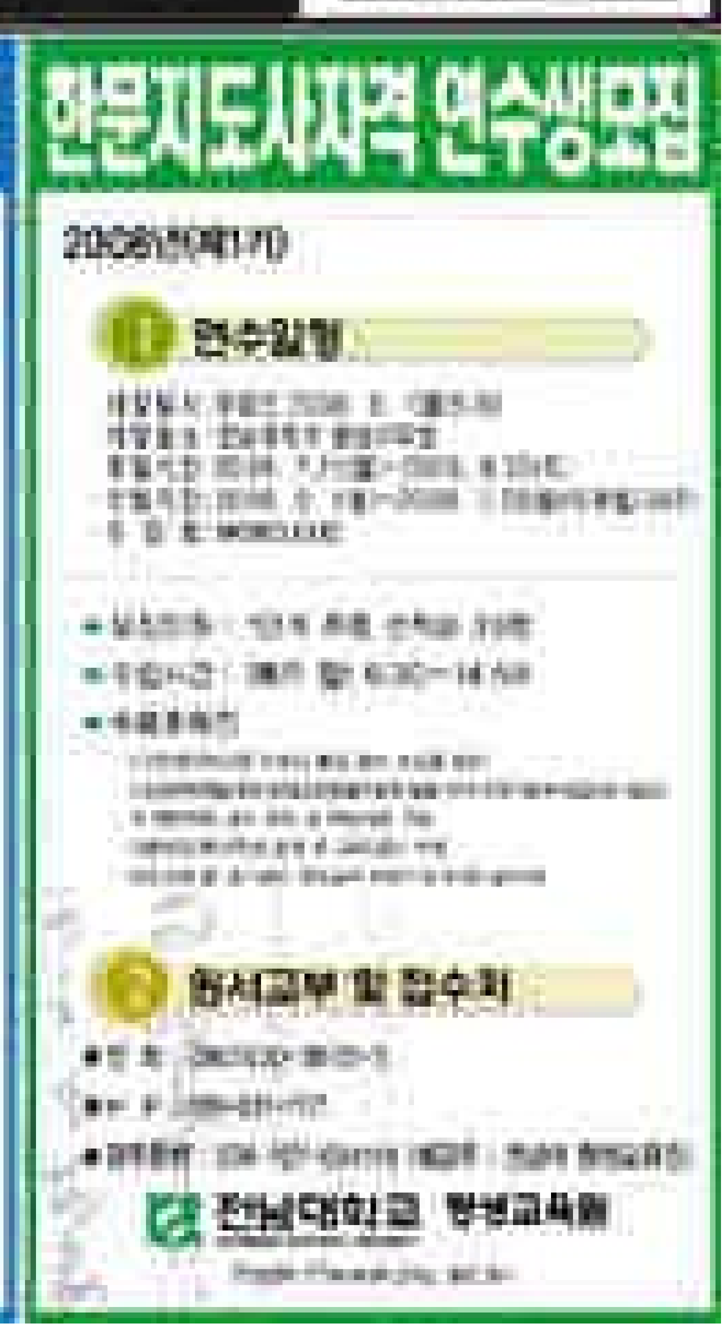
오늘 최대 20㎜ 내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은 금요일(25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부터 3일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며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5~20㎜.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로 예상됐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25일)까지 온 뒤 토요일(26일)부터 점차 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주말과 휴일동안 이어지겠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서울경찰청장 경질…후임에 김석기 차장 내정

경찰청은 22일 김석기 경찰청 차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3명에 대한 보직이동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임재식 경찰대학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됐으며 나머지 1명의 치안정감인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경찰청 최광화 대변인은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며칠 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보직변경을 스스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번 치안정감 보직인사가 한 청장이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경하고 일관된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문책성 인사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